■ 민족문화연구 제89호(2020.11.3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511-538.
http://doi.org/10.17948/kcs.2020..89.511

신동엽 시의 애도 양상 연구

김태우(金泰優)*

목 차

1. 서론
2. 비극의 통과의례로서 애도
3. 혁명의 선결조건으로서 애도
4. 사랑의 필수불가결로서 애도
5.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신동엽 시에 드러난 애도 양상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애도는 상실에 대한 반응으로 신동엽 시에서 당대 현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또한 신동엽 시의 원천으로서 시세계를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에 프로이트와 데리다의 애도 이론을 원용하여 신동엽 시의 애도 양상과 의미를 파악하였다.

애도는 신동엽 시에서 비극에 대응하는 반응으로 표출되었다. 전쟁의 비극적 상황에서 애도는 통과의례로 등장하여 상실의 대상을 극복하고 상실 이후의 삶을 준비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애도 작업을 통해 상실 이후의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였다. 다음으로 애도는 신동엽 시에 등장하는 혁명의 선결조건으로 선택되었다. 혁명을 위한 애도는 상실의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의 대상과 함께 진행되었다. 혁명으로 인해 희생당한 자들을 애도할 때 혁명은 지속성을 갖고 종국에는 완수할 수 있는 대상

*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으로 파악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애도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선택으로 자리하였다. 애도는 상실의 대상을 내면화하여 소환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였다.

이처럼 애도는 신동엽 시의 원천 의식으로 내재하며 개인적, 시대적으로 상실된 대상에 대한 미래지향적, 정신적,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는 기제로 나타난다. 이렇게 신동엽 시에 드러나는 애도를 파악하는 것은 신동엽 시의 시적 태도와 그 원리를 이해하는 작업이다.

주제어: 신동엽, 애도, 비극, 혁명, 사랑, 프로이트, 데리다.

1. 서론

신동엽[1]은 1960년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당대의 시대정신이 투영된 작품을 선보였다. 1960년대는 기존의 사상과 체제의 억압을 극복하기 위한 민중들의 주체적 투쟁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졌으며 혁명으로 표출된 시기였다. 동시에 민주화에 대한 투쟁과 열망이 근대화의 논리와 냉전 체제의 논리 등 현실적 한계에 좌절을 겪은 시기였다. 신동엽은 민주화의 열망과 현실적 한계의 간극에서 발생한 상실의 문제와 이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애도의 문제에 주목하였다. 신동엽이 주목한 애도는 당대의 현실 문제에 대한 저항 의지를 작동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신동엽 시세계의 근저에 위치하며 주제의식을 구현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신동엽은 시에서 애도를 1960년대에 한정된 시대적 반응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선대부터 이어져 온 민중들의 민족성에 내재한 것으로 이해한다. 애도에 대한 이러한 사유는 신동엽의 시적 태도를 대변하는 '민족', '민중', '참여' 시인이라는 수식어에 내재

1) 신동엽(1930-1969)은 1959년 조선일보에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가 입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첫 시집 『아사녀』, 문학사, 1963을 출간하였으며 장편 서사시 「금강」(1967)을 발표하였다. 사후에 발표된 시편은 『신동엽전집』, 창작과비평사, 1975에, 미발표 유고 시편은 『꽃같이 그대 쓰러진』, 실천문학사, 1988에 각각 수록되었다. 최근에는 이미 출간된 시편과 함께 미간 시편을 묶은 강형철・김윤태 엮음, 『신동엽 시전집』, 창작과비평사, 2013이 출간되었다. 이외에도 시극 「그 입술에 파인 그늘」과 오페레타 「석가탑」, 평론 「시인정신론」외 16편, 수필, 일기, 편지, 기행, 방송 대본을 발표하였으며 이들은 강형철・김윤태 엮음, 『신동엽 산문전집』, 창작과비평사, 2019에 수록되어 있다. 본고는 『신동엽 시전집』, 창작과비평사, 2013에 수록된 시편을 대상으로 한다.

된다. 애도는 현실 문제에 관여하는 문학을 통해 구현된다. 문학이 현실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과 애도가 표출되는 방식의 유사성 때문이다. 즉 문학과 애도는 은유와 상징의 의미 생성을 통해 구현되는데, 이러한 유사성은 문학의 애도적 기능과 애도의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애도는 신동엽 시의 근원 의식과 시적 원리를 이해하는 데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신동엽 시에 대한 초기 논의들은 그의 시를 참여시로 규정하여 평가하였다. 조동일은 신동엽 시를 "참여시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육박한 시"[2]로 평가하였으며, 김수영은 신동엽의 시가 "오늘날 참여시에서 바라는 최소한의 모든 것이 들어 있다"[3]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신동엽 시의 참여시적 성격은 당대의 시대정신을 표출한 시적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논의들은 민족·민중 문학의 관점으로 확장되었다.[4] 신동엽 시를 당대의 시대정신에서 비롯된 결과물이 아니라 민족적 역사의식을 기반으로 형성된 결과물로 인식한 것이다. 그것이 신동엽 시세계의 원천인 동시에 지향점이라는 사실과 신동엽의 문학적 성취를 확인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실에는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동엽 시세계의 내면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에 내재된 근원 의식과 그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신동엽 시에 대한 최근 논의에서 심층적이고 다양한 관점으로 지속되며 그 범위 또한 확장되고 있다.[5]

---

2) 조동일, 「시와 현실참여—참여파의 시적 가능성」, 『52人 詩集』, 신구문화사, 1967, 458면.

3) 김수영, 「참여시의 정리—1960년대의 시인을 중심으로」, 『김수영 전집2 산문』, 민음사, 2011, 394면.

4) 구중서·강형철 엮음, 『민족시인 신동엽』, 소명출판, 1999. 이 책에 수록된 다수의 논문들은 신동엽 시의 민족주의적 성격에 주목한 연구들이다.

5) 최근 신동엽 시는 탈식민성, 아나키즘, 동학사상, 탈근대성, 형식미, 시론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된다. 대표적으로 탈식민성, 아나키즘, 동학사상, 탈근대성, 형식미, 시론 등이 있다. 박지영, 「제3세계로서의 자기 정위와 '신성'의 발견: 1960년대 김수영·신동엽 시에 나타난 정치적 상상력」, 『반교어문연구』 제39권, 반교어문학회, 2015; 최진석, 「아나키의 시학과 윤리학」, 『비교문학』 제71권, 한국비교문학회, 2017; 이나영, 「신동엽 문학사상과 동학사상의 관련성 고찰」, 『어문학』 제144집, 한국어문학회, 2019; 오창은, 「시적 상상력, 근대체제를 겨누다」, 김응교 엮음, 『신동엽: 사랑과 혁명의 시인』, 글누림, 2011; 이대성, 「신동엽 시에 나타난 오장환 시의 인유 양상 연구」, 『한국문학과 예술』 제25집, 숭실대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8; 오문석, 「신동엽의 시론 연구」, 『인문학연구』 제48호, 조선대 인문학연구소, 2014. 이후에도 신동엽의 시세계를 고찰한 논의들은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확장되는 추세이다.

본고는 기존의 선행 연구 중 신동엽 시의 근원 의식과 그 역할에 초점을 맞춘 방승호, 김희정의 논의에 주목한다. 방승호는 신동엽 시에서 꽃과 짐승으로 표상된 멜랑콜리에 주목하여 이념과 사상 이면에 감춰진 내면의 아픔과 의식의 원천을 파악한다. 그러면서 멜랑콜리를 자의식의 정서적 근원이자 시세계의 정신적 소산으로 이해한다.[6] 그러나 신동엽 시의 정신적 소산으로 이해한 멜랑콜리를 유고 시집에 한정하여 파악하였다. 이렇게 특정 시기에 한정하여 멜랑콜리를 파악하는 것은 신동엽의 총체적인 시세계를 아우르지 못하고 시세계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을 조명한 한계가 있다. 김희정은 신동엽의 정치적 진리 절차를 4·19혁명의 역사적 '사건'을 전후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4·19혁명에 대한 애도 완료를 통해 '사건'의 흔적을 지우려 한 당시 국가의 조국근대화론과 반공주의적 프로파간다에 맞서 4·19혁명의 애도 불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실패를 넘어설 새로운 방법적 탐색을 예고하는 정황에 주목하였다.[7] 그러나 4·19혁명의 애도 불가능성을 정치적으로 접근한 나머지 신동엽 시에 내재한 4·19혁명의 근원 의식과 이를 추동하는 원리에 대한 이해가 미흡해 보인다. 이처럼 최근 논의들은 신동엽 시의 근원 의식과 그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동엽 시세계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에 본고는 신동엽 시의 근원 의식이 '애도'를 기반으로 형성하였다고 보고 신동엽 시에 드러난 애도의 성격에 주목하여 그 양상과 의미를 확인할 것이다.

신동엽의 시세계는 현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현실인식과 민족적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현실인식과 역사의식은 개인적, 사회적 상실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애도를 함의한다. 신동엽 시에서 애도는 단순히 상실에 대한 추모의 의미보다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 나아가 자기반성의 의미가 강하다. 특히 사회적 죽음에 대한 애도는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보다 살아남은 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윤리적 실천으로 이해한다.

---

6) 방승호, 「신동엽 시의 멜랑콜리 표상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63집, 우리문학회, 2019, 375-398면.

7) 김희정, 「신동엽 시에 나타난 정치적 진리 절차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9, 109-142면.

이는 사회적 애도가 개인적 애도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며, 우리 사회의 병을 치유하고 공동체 보존하기 위해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작업[8]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애도는 신동엽이 당대 현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식인 동시에 시세계를 형성하는 시적 원리로 나타난다. 따라서 신동엽 시에 드러난 애도의 양상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신동엽 시세계의 근원 의식과 시적 원리까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신동엽 시의 특정 시기 시편에 주목하기보다 애도적 사유를 내재한 '비극', '혁명', '사랑'의 주제의식에 부합하는 시편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애도 이론은 프로이트와 데리다의 논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애도와 멜랑콜리」[9]에서 애도의 결과에 따라 그 형태를 구분한다. 애도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에 대신 들어선 어떤 추상적인 것, 즉 조국, 자유, 어떤 이상(理想) 등의 상실에 대한 반응"[10]으로 죽음을 포함한 모든 상실의 경험이 대상이 된다. 이러한 애도는 정상적인 애도, 병리적인 애도, 멜랑콜리로 나누어진다. 우선 정상적인 애도는 상실의 주체가 대상이 상실된 이후 그 대상에게 투여했던 리비도를 자아로 철수시키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애도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다른 대상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본다. 반면, 병리적인 애도의 경우 정상적인 애도를 진행하지 못한 채 환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으며, 그 죽음을 부인하면서 고인의 혼령이 자기에게로 들어온다고 믿는 경우이다.[11] 이는 상실의 대상을 대신할 대체물이 보장되더라도 리비도적 입장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실에 등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환각적인 소원 성취의 정신병

8) 김석, 「애도의 부재와 욕망의 좌절」, 『민주주의와 인권』 제12권 1호, 전남대 5.18연구소, 2012, 59-60면.

9) 프로이트의 "Trauer und Melancholie"(1917)는 「슬픔과 우울증」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되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박찬부 역, 「슬픔과 우울증」,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화당, 2003. 임진수는 독일어 Trauer의 경우 사랑하는 대상의 죽음(상실)의 고통으로부터 오는 슬픔이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심적 반응의 총체로 이해한다. 따라서 단순히 '슬픔'으로 번역하면 상실로 인한 심적 반응의 총체를 함의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본고는 임진수의 견해에 동의하여 '슬픔'을 '애도'로 사용할 것이다. 임진수, 『애도와 멜랑콜리』, 파워북, 2013, 8면.

10) 지그문트 프로이트, 앞의 책, 244면.

11) 임진수, 앞의 책, 50-52면.

을 매개로 하여 예전의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12] 멜랑콜리는 상실의 주체가 대상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여했던 리비도를 철수시키지 못한 채 상상적으로 상실의 대상과 상실의 주체가 동일시되며 퇴행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상실의 주체는 자기를 비하하고 비난하며 상실된 대상에 대해 애증병존의 양가적 감정을 가진다. 표면적인 자기 비난에는 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실된 대상에 대한 비난을 함축하기 때문이다.[13] 이렇게 애도는 상실의 대상에 부과되었던 모든 리비도를 다 철회시켜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상실의 대상을 대신할 대체물이 보장되었을 때의 반응에 따라 정상적 애도와 병리적 애도로 구분되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이트식 애도는 상실의 대상에 투여했던 리비도를 철회하여 새로운 대체 대상에 투여할 때 그 대상을 수용할 여지를 준다. 결국 프로이트식 애도 작업은 상실의 상태를 대체 대상을 통해 극복 가능한 상태로 보는 견해이며, 상실의 대상보다 상실의 주체, 상실의 상태보다 상실 이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데리다의 애도 이론은 프로이트의 애도 이론을 수용하면서도 프로이트의 관점을 수정한다. 데리다가 애도 이론을 개진하면서 밝히고 있는 기억과 내면화, 애도의 불가능성의 문제는 애도와 우울증에 대한 프로이트의 기본적인 틀이 없었다면 불가능[14]한 일이기 때문이다. 데리다의 입장에서 애도는 본질적으로 타자를 상징적, 이상적으로 내면화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곧 타자를 자아의 상징 구조 안으로 동일화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상적 애도, 성공적 애도는 타자의 타자성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타자에 대한 심각한(상징적) 폭력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데리다가 보기에 애도가 타자에 대한 존중, 타자에 대한 충실한 기억을 목표로 하는 이상, 정상적 애도는 실패한 애도, 불충분한 애도일 수밖에 없다.[15] 다시 말해 데리다는 기억과 내면화를 통한 '정상적인' 애

12) 지그문트 프로이트, 앞의 책, 245-246면.
13) 본고는 프로이트와 데리다의 애도 이론을 통해 신동엽 시에 나타난 애도 양상과 그 의미를 확인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애도 이론 중 애도(슬픔)에 초점을 맞춰 논의할 것이다. 임진수, 앞의 책, 52-54면.
14) 왕철, 「프로이트와 데리아의 애도이론—"나는 애도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영어영문학』 제58권 4호, 한국영어영문학회, 2012, 799면.
15) 자크 데리다, 진태원 역, 『마르크스의 유령들』, 이제이북스, 2007, 389면.

도 작업을 타자에 대한 일종의 배반행위로 인식한다. 그것은 타자의 타자성을 말살[16]하기 때문이다. 결국 데리다는 “정상적인 것이 불가능자가 아닌 이상 정상적 애도 같은 것은 없다”[17]고 말한다. 이렇게 데리다는 성공적인 애도를 부정한다. 애도의 성공은 타자의 상실을 극복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애도에 성공하게 되면 그것은 실패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18] 즉 성공적인 애도를 불가능한 애도로 인식하는 것이다.[19] 결과적으로 데리다에게 가장 성공적인 애도의 모습은 상실된 대상이 타자성을 유지하며 영원한 주체로서 상실의 주체 내면에 공존한 상태로 이해한다. 이것은 데리다가 애도의 기준을 상실의 주체가 아닌 상실된 대상 즉 타자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상의 애도 이론을 바탕으로 신동엽 시의 근원 의식을 파악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신동엽 시에서 조명되지 않은 애도 양상을 통하여 당대 현실에 대응하는 신동엽의 시적 태도와 그 원리를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신동엽 시세계를 폭넓게 재구성하고 이해하는 데에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2. 비극의 통과의례로서 애도

모든 상실이 비극으로 귀결되는 까닭은 상실 이후의 삶이 상실 이전의 삶으로 완전히 복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쟁은 기존 가치 체계를 해체하고 파괴함으로써, 상실 이전과 이후의 삶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비극적인 사건이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는 죽은 자에 대한 죄의식을 겪으며, 이로 인하여 삶이 통제되는 비정상적인 삶을 영위한다. 신동엽은 전쟁의 비극적 상황이 가져온 상실의 상태에서 벗어나려 시도한다. 이 지점에서 애도 작업은 상실

16) 왕철, 앞의 글, 789면.
17) 니콜러스 로일, 오문석 역, 『자크 데리다의 유령들』, 엘피, 2007, 303면.
18) 페넬로페 도이처, 변성찬 역, 『HOW TO READ 데리다』, 웅진지식하우스, 2007, 129면.
19) 왕철은 애도의 불가능성은 애도에 대한 현실적인 처방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느끼는 감당할 수 없는 감정으로 이해한다. 왕철, 앞의 글, 798면.

의 대상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대체 대상을 찾고 이를 통해 상실의 상태 즉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과의례로 기능한다.

신동엽은 죽음을 "지금 살아 있는 사람들도 얼마 안 가서 모두 죽어버"[20] 리는 현상으로 인식한다. 죽음을 보편적인 진리로 이해하는 한편,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를 동일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죽음의식은 전쟁의 비극적 상황을 죽음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까지 확장하여 인식한 결과이다. 즉, 전쟁의 비극성은 전쟁의 종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이후에도 현실에 잔존하며, 삶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결국 애도는 전쟁 이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필요한 통과의례이다.

이러한 시적 태도는 1950년대 전후 시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50년대 전후 시는 애도의 언어, 우울증의 언어로 전쟁의 정신적 공포와 충격에 대응하였다. 그 결과 1950년대 전후 시는 '애도적 언술'로 규정되었다.[21] 신동엽 시에 드러나는 애도 역시 1950년대 '애도적 언술'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1950년대 전후 시가 애도의 언어와 우울증의 언어로 혼재되어 나타났다면 신동엽 시에 나타난 애도는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신동엽 시에서 애도는 선대부터 이어져 온 민족성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쟁의 상실 상태에서 벗어나 상실 이후의 삶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실천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미래지향적 실천은 단순히 상실의 상태에서 벗어나 현실의 안위를 확보하기 위한 태도로 이해하기보다 미래 현실을 지배하는 상실과 슬픔의 원천을 극복하려는 태도에 기인한다. 미래지향적 실천의 애도적 사유는 생명성을 견지한 자연물을 통해 표출되는데 이는 비극의 통과의례로서 기능하는 애도의 시적 원리이다.

> 길가엔 진달래 몇 뿌리/꽃 펴 있고,/바위 모서리엔/이름 모를 나비 하나/머물고 있었었어요//잔디밭엔 장총(長銃)을 버려 던진 채/당신은/잠이 들었죠.//햇빛 맑은 그 옛날/후고구려 적 장수들이/의형제를 묻던,/거기가 바로/그 바위라 하더군요./

20) 신동엽, 강형철・김윤태 엮음, 『신동엽 산문전집』, 창작과비평사, 2019, 265면.
21) 김승희, 「전후 시의 언술 특성: 애도의 언어와 우울증의 언어」, 『한국시학연구』 제23호, 한국시학회, 2008, 146면.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산으로 갔어요/뼈섬은 썩어 꽃죽 널리도록.//남해 가,/
두고 온 마을에선/언제인가, 눈먼 식구들이/굶고 있다고 담배를 말으며/당신은 쓸
쓸히 웃었지요.//지까다비 속에 든 누군가의/발목을/과수원 모래밭에선 보고 왔어
요.//꽃살이 튀는 산허리를 무너/온종일/탄환을 퍼부었지요.//길가엔 진달래 몇
뿌리/꽃 펴 있고,/바위 그늘 밑엔/얼굴 고운 사람 하나/서늘히 잠들어 있었었어요/
/꽃다운 산골 비행기가/지나가/기관포 쏟아놓고 가버리더군요.//기다림에 지친 사
람들은/산으로 갔어요./그리움은 회올려/하늘에 불붙도록./뼈섬은 썩어/꽃죽 널리
도록.//바람 따신 그 옛날/후고구려 적 장수들이/의형제를 묻던,/거기가 바로/그
바위라 하더군요.//잔디밭엔 담뱃갑 버려 던진 채/당신은 피/흘리고 있었어요.

—「진달래 산천」 전문[22]

이 시에서 '당신'은 전쟁의 당사자로서 전쟁으로 인해 희생당한 대상이다. 또한 당대의 피해자인 동시에 선대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 피해자로 이해된다. 화자는 이러한 '당신'을 '후고구려'부터 이어져 온 동족으로 파악한다. 이는 '그 옛날/후고구려 적 장수들이/의형제를 묻던' 자리와 '당신'의 자리를 동일하게 인식한 결과이다. 여기서 '당신'의 자리로 표상되는 '바위'는 애도의 결과물로 살아남은 자들이 상실의 상태에서 벗어나 상실 이후 삶을 모색하기 위해 상실감을 투여한 외부 대상이다. 실체가 없는 상실감을 고정된 실체인 '바위'에 투여함으로써 상실에서 벗어나 슬픔을 극복하고 이를 통해 상실 이후 삶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간의 간극을 초월하는 비극적 상황의 역사적 반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화자는 상실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도를 통과의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

주목할 것은 애도 작업이 '바위'를 통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도피를 통해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다. 현실 도피는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 즉, 살아남은 자들이 상실의 상태에서 벗어나 상실 이후의 삶을 모색하기 위해 선택한 또 하나의 방법이다.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상실의 대상으로 인해 피폐해진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쓸데없이 낭비되는 리비도를 자기 대상에게 투여한다. 프로이트 식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대상에 투여되었던 리비도를 서서히 대상으로부터 분리하여 자기애적인 만족으로 이용하는 것이다.[23] 화자는 '산'에서 '당

22) 신동엽, 강형철・김윤태 엮음, 『신동엽 시전집』, 창작과비평사, 2013, 16-18면.

신'에 대한 '그리움'을 '회올려/하늘에 불붙도록' 애도 작업을 지속한다. 상실의 대상에 대한 리비도를 자신을 매개로 하늘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 도피의 대상이 되는 '산'은 전쟁의 희생자들의 '뼈섬'이 '썩어' 만들어진 공간이다. 이처럼 어느 곳도 전쟁의 비극적 상황에서 예외일 수 없는 상실의 상태에서 애도는 비극의 통과의례로 나타난다. 이렇게 비극적 상황에서 애도 작업을 지속하는 것은 상실 이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애도 작업은 비극적 상황의 역사적 반복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애도를 통해 이루어진 상실 이후의 삶은 '진달래 산천'으로 표상된다. 이는 봄의 형상을 한 한반도 전역으로 우리 민족이 수천 년간 생활을 영위해 온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현실은 좌우 이데올로기의 전쟁이 진행된 비극적인 공간이다. 화자는 이렇게 전쟁의 참혹성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대비되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한국전쟁의 참상을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이해한다. 한국전쟁으로 희생당한 대상을 적군(가해자)과 아군(피해자)으로 구분하여 인식하기보다 전쟁의 비극적 당사자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극에 대해 애도가 통과의례로 작용할 때 상실의 상태는 극복 가능하며, '진달래'로 표상되는 자연의 생명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삶을 가능하게 한다.

> 삼백예순날 날개 돋친 폭탄은 대양 중가운데/쏟아졌지만, 허탕 치고 깃발은 돌아갔다./승리는 아무 데고 없다.//후두둑 대지를 두드리는 여우비./한 무더기의 사람들은 냇가로 몰려갔다./그들 떠난 자리엔 펄 펄 펄 심장이 흘리워 뛰솟고.//독은 비어 있다./다투어 배 밖으로 쏟아져나간 콩나물 역사./아침 햇살 속 오간 수만 화살. 날아간 물체들의/흐느낌은 정(定)한 문(門), 지평(地平)의 밖이었다.//그곳엔 무덤이 있다.//바닷가선 비 묻은 구름 용을 싣고 찬란하게/쪄 들어오리니/급기야 홍수는 오고,/구렁이, 모자, 톱니 쓸린 공장 헤엄쳐 나가면//조상(吊喪)도 없이 옛 마을 터엔 휑휑 오갈 헛바람./쓸쓸하여도 이곳은 점령하라. 바위 그늘 밑, 맨마음 채/여문 코스모스씨 한톨. 억만년 퍼붓는 허공밭에서./턱 아래 안창엔 심그라./사람은 비어 있다./대지(大地)는/한가한/빈집을 지키고 있다.
>
> —「이곳은」 전문[24]

23) 임진수, 앞의 책, 54-55면.
24) 신동엽, 앞의 책, 2013, 39-40면.

위 시는 전쟁의 허무함과 무용성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전쟁 이후 끝나지 않는 전쟁의 상흔을 보여준다. 전쟁의 비극성은 가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인 피해로도 나타난다. 화자는 전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전쟁의 비가시적인 피해와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한다. 전쟁 이후 지속되어 온 상실의 상태가 살아남은 자에게 죄의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화자는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도 작업을 실천하고 상실 이후의 삶을 도모한다. 여기서 전쟁의 상흔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제시된다. '이곳'과 '그곳'은 표면적으로 다른 공간을 지칭하지만 그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은 동일하다. '이곳'과 '그곳'은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인한 상실의 상태와 상실 이후의 삶이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곳'이 위치한 곳은 '지평의 밖'으로 현실과 별개의 공간으로 제시된다. 전쟁으로 인한 상실의 상태를 현실로 인지하지 않음으로써 상실의 충격과 공포를 현실 밖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쟁으로 인한 상실의 상태와 분리된 상실 이후의 삶을 '무덤'을 통해 제시한다. '그곳'에 위치한 '무덤'은 살아남은 자가 심리 내적인 기억을 외재화시켜 물질에 고정시킨 기억의 찌꺼기이다. 이는 기억을 바깥으로 꺼내어 애도를 구현, 승화시킨 것[25]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아남은 자는 애도 작업을 통해 상실 이후의 삶에 대한 도모가 가능하다. 결국 '무덤'으로 표상되는 성공적인 애도 작업은 상실의 주체가 상실의 대상을 기억하는 행위인 동시에 그들로부터 분리되는 망각의 절차이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애도 작업은 상실 이후 삶을 추동하는 동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 '이곳'은 '옛 마을터'로 전쟁으로 인한 상실의 상태가 지속되는 공간이다. 상실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조상(吊喪)도 없이' 즉, 애도 작업 없이 상실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산 자의 기억 속에 있는 망자의 자리를 비워두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는 구천을 떠도는 유령이 된다."[26]고 말한다. 이는 살아남은 자가 애도를 통해 상실의 대상에서 벗어날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상실된 대상 역

25) 임진수, 앞의 책, 46-47면.
26) 같은 책, 21면.

시 살아남은 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곳'은 애도 작업이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은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점령하라'고 한 것은 '빈집' 형태로 제시된 공간에 상실 이후의 모습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빈집'은 애도 이후 삶의 모습을 표상한 열린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성공적인 애도 작업을 완수했을 때 '여문 코스모스씨 한톨'로 표상되는 생의 의지가 발현된다. 전쟁으로 인한 상실의 상태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전쟁 이전의 모습 즉, 태초의 자연으로 회귀가 가능한 것이다.

눈이 오는 날/소년은 쓰레기통을 뒤졌다.//바람 부는 밤/만삭의 임부는/철조망 곁에 쓰러져 있었다.//그리고 눈이 갠 아침/그 화창하게 맑은 산과 들의/은빛 강산에서/열두살짜리 소년들은/어제 신문에서 읽은 동화(童話) 얘길 재잘거리다/저격 받았다.//나는 모른다./그 열두살짜리들이 참말로/꽁꽁 얼어붙은 조그만 손으로/자유를 금 그은 철조망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나는 모른다/그 철조망들이/맨발로 된장찌개 말아 먹은 소년들에게/목숨을 강요해서까지/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다만 나는 안다/지금은 이중으로/철조망이 쳐져 있고/검은 창고가 서 있지만/그 근처 양지바른 언덕은/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머리에 흰 수건 두른 아낙들이/안방 이야길 주고받으며/햇빛에, 목화단 콩깍지들을 말리던 곳이다.//그리고 또 나는 안다/지금 낯선 얼굴들이/얕보는 휘파람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그 근처 양지바른 언덕은/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토끼몰이 하던 아우성으로/씨름놀이 하던 함성으로/밤낮을 모르던 박첨지네 동산이다.//쓰레기통을 뒤져/깡통 꿀꿀이죽을 찾아 먹는 일/나도 이따금은 해봤다/눈사태 속서 총 겨냥한/낯선 병정의 호령을 듣고/그 퍽퍽한 눈 속을/깊이깊이 빠지면서 무릎 이겨 기던/그 소년의 마음을 나는 안다.//꿰진 뒤꿈치로/사지 늘어트려/국수가닥 깡통을/눈 속에 놓치던/그 마음을 나는 안다.//아기 밴 어머니가/배가 고파, 애들을 재워놓고/집을 빠져나와/꿀꿀이죽을 찾으려던 그 마음을,/고요한 새벽 흰 눈이 쌓인 그 벌판에서의/외로운 부인의 마음을/나는 안다.//왜 쏘아./그들이 설혹/철조망이 아니라/그대들의 침대 밑까지 기어들어갔었다 해도,/그들이 맨손인 이상/총은 못 쏜다.//왜 쏘아./우리가 설혹/쓰레기통이 아니라/그대들의 판자(板子)안방을 침범했었다 해도/우리가 맨손인 이상/총은 못 쏜다.//쏘지마라./솔직한 얘기지만/그런 총 쏘라고/박첨지네 기름진 논밭,/그리고 이 강산의 맑은 우물/그대들에게 빌려준 우리 아니야.//벌 주기도 싫다/머피 일등병이며 누구며 너희 고향으로/그냥 돌아가주는 것이 좋겠어.//솔직히 얘기지만/이곳은 우리들이/백년 오백년 천년을 살아온/아름다운 땅이다.//솔직히 얘기지만/이곳은 우리들이 천년 이천년/울

타리 없이도 콧노래 부르며 잘 살아온/아름다운 강산이다.

—「왜 쏘아」 전문[27]

전쟁은 전쟁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쟁과 무관한 자들까지 모두 피해자로 만들었다. 특히 분단은 한국전쟁의 비극적 결과로 전쟁 이후 잔존해 있는 전쟁의 비극성을 재확인시켜준다. 화자는 분단이 가져다 준 아이의 죽음을 통해 전쟁과 무관한 자들까지 영향을 끼친 전쟁의 비극성과 인간 존엄을 무시하는 행태에 분노한다. 그러면서 죽음으로 인한 상실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도 작업을 수행한다. 여기서 애도 작업은 전쟁의 당사자들에게만 국한되기보다 전쟁의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개인적 차원의 애도를 넘어 사회적 차원의 애도가 진행되는 것이다.

분단이라는 비정상적인 현실의 비극성은 '소년'의 행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극적 현실에서 '소년'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행위는 생존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그러나 '소년'이 생명 연장을 위해 행한 생존 행위는 결국 죽음으로 귀결된다. '소년'의 죽음은 죽음의 표면적인 원인이 된 '철조망'을 끊는 행위의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따라서 '소년'의 죽음은 생존을 위한 행위의 결과로, 이는 분단 현실에서 구조적으로 나타난 사회적 타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소년'이 죽은 연유에 대해 '나는 모른다'고 부정하는 동시에 '소년'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또한 부정한다. 현실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화자는 '소년'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현실에 대해서는 '안다'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는 '소년'이 생존을 위해 '쓰레기통'을 뒤는 현실을 이해하면서도 이를 죽이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 주둔군에 의한 '소년'의 죽음은 한 개인이 아닌 '아름다운 땅'에서 영위하는 우리 모두에 대해 죽음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화자는 비극적 상황에서 발생한 죽음의 경우 특정 대상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닌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임을 자각한다. '소년'의 죽음을 불특정 다수의 죽음으로 확장해서 이해한 것이다. 이는 전쟁 이후 지속되는

27) 신동엽, 앞의 책, 2013, 433-437면.

상실의 상태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죽음을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문제로 확장시킨다. 죽음으로 인한 상실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애도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개인의 죽음을 개인적 죽음뿐만 아니라 사회적 죽음으로 인식하는 것은 죽음으로 전쟁의 비극성이 사회적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상실의 상태를 사회적 차원에서 애도 하지 않을 경우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애도는 사회적 차원의 상실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살아남은 자들의 통과의례로 나타난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애도는 단순히 상실 이후의 삶을 위한 행위를 넘어 살아남은 자들의 서로를 위한 위로이며, 이것은 미래를 위한 실천으로 나타난다.

3. 혁명의 선결조건으로서 애도

혁명은 기존 가치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한다. 주지하다시피 4·19혁명은 해방 이후 이어져온 사회적 병폐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민중들의 주체적인 저항을 통해 변화시킨 사건이다. 이러한 혁명 정신은 1960년대 시대정신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와 혁신을 보여주었다. 신동엽은 4·19혁명의 정신을 동학운동, 3·1운동으로 이어지는 연장선상의 민족적 역사의식 속에서 이해한다. 시간의 간극을 뛰어넘는 혁명 정신을 당대의 불의에 대응하는 시대적 반응을 넘어 민족적 정신이 함의된 반응으로 이해한 것이다.

신동엽에게 한국전쟁의 원체험이 수동적 주체의 대응물로 자리했다면, 4·19혁명의 원체험은 능동적 주체의 실천물로 존재한다. 이렇게 4·19혁명은 1960년대 문학은 물론 신동엽의 시적 생애에도 큰 전환점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4·19혁명은 이승만 정권의 퇴진이라는 결과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5·16군사 쿠데타로 인해 미완의 혁명으로 존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4·19혁명은 신동엽에게 완수의 대상으로 남아 지속적으로 소환되었다. 4·19

혁명의 지속적인 소환은 미완의 혁명을 완결시키려는 의지와 함께 혁명을 위해 희생당한 자들의 애도를 함의한다. 혁명으로 인해 희생당한 자들을 애도할 때 혁명은 지속성을 갖고 종국에는 완수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애도는 상실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체 대상에 리비도를 투여하는 프로이트식 애도가 아닌 타자성을 유지한 채 살아남은 자와 공존하는 형태의 데리다식 애도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자아는 자신의 내부에 "합법적인 묘소"를 마련함으로써 타자의 시신을 안치하고 이를 통해 이미 상실된 타자의 죽음 이후의 삶을 계속 유지시킨다. 더 나아가 자신의 동일성을 이 타자가 죽은 이후의 삶과의 동일화로 대체한다.[28] 이러한 애도는 미완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자리하며, 혁명을 위한 정신적 실천물로 기능한다. 이것은 신동엽이 애도를 혁명의 동력으로 이해하고 실천한 것이다.

> 너의 눈은/밤 깊은 얼굴 앞에/빛나고 있었다.//그 빛나는 눈을/나는 아직/잊을 수가 없다.//검은 바람은/앞서 간 사람들의/쓸쓸한 혼을/갈가리 찢어/꽃 풀무 치어오고//파도는,/너의 얼굴 위에/너의 어깨 위에 그리고 너의 가슴 위에/마냥 쏟아지고 있었다.//너는 말이 없고,/귀가 없고, 봄(視)도 없이/다만 억천만 쏟아지는 폭동을 헤치며/고고(孤孤)히/눈을 뜨고/걸어가고 있었다.//그 빛나는 눈을/나는 아직/잊을 수가 없다.//그 어두운 밤/너의 눈은/세기(世紀)의 대합실 속서/빛나고 있었다.//빌딩마다 폭우가/몰아쳐 덜컹거리고/너를 알아보는 사람은/당세에 하나도 없었다.//그 아름다운,/빛나는 눈을/나는 아직 잊을 수 없다.//조용한,/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만 사랑하는/생각하는, 그 눈은/그 밤의 주검 거리를/걸어가고 있었다.//너의 빛나는/그 눈이 말하는 것은/자시(子時)다, 새벽이다, 승천(昇天)이다.//어제/발버둥치는/수천수백만의 아우성을 싣고/강물은/슬프게도 흘러갔고야.//세상에 항거함이 없이,/오히려 세상이/너의 위엄 앞에 항거하려 하도록/빛나는 눈동자./너는 세상을 밟아 디디며/포도알 씹듯 세상을 씹으며/뚜벅뚜벅 혼자서/걸어가고 있었다.//그 아름다운 눈./너의 그 눈을 볼 수 있는 건/세상에 나온 나의, 오직 하나/지상(至上)의 보람이었다.//그 눈은/나의 생(生)과 함께/내 열매 속에 살아남았다.//그런 빛을 가지기 위하여/인류는 헤매인 것이다.//정신은/ 빛나고 있었다./몸은 야위었어도/다만 정신은 빛나고 있었다.//눈물겨운 역사마다 삼켜 견디고/언젠가 또다시/물결 속 잠기게 될 것을/빤히, 자각하고

28) 자크 데리다, 앞의 책, 388면.

있는 사람의.//세속된 표정을/개운히 떨어버린,/승화된 높은 의지 가운데/빛나고 있는, 눈//산정(山頂)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정신의/눈/깊게. 높게./땅속서 스며나오듯 한/말 없는 그 눈빛.//이승을 담아버린/그리고 이승을 뚫어버린/오, 인간정신미(美)의/지고(至高)한 빛.

—「빛나는 눈동자」 전문[29]

위 시에서 화자는 '너'로 표상되는 혁명 주체의 행적을 통해 혁명의 의미를 재확인한다. 혁명 주체는 '검은 바람', '파도' 등 외부 세력의 방해와 혁명에 대해 '알아보는 사람' 하나 없는 현실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혁명에 대한 의지를 보인다. 이러한 혁명 의지는 '빛나는 눈'을 통해 나타난다. 이렇게 화자가 '빛나는 눈'을 통해 확인한 혁명은 현실의 어떠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실행 가능한 당위적 의무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혁명의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수백만의 아우성' 즉 혁명으로 인한 희생자만이 존재할 뿐, 혁명 의지가 결여된 상태이다.

혁명의 희생자는 단순히 당대의 피해자가 아니라 '앞서 간 사람들의/쓸쓸한 혼'이 중첩되어 형성된 이미지로 나타난다. 혁명의 희생자를 단순히 4·19혁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유와 미래를 위해 희생한 선대의 유산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명 주체가 '세상에 항거함이 없이,/오히려 세상이/너의 위엄 앞에 항거하려 하도록' 혁명을 실천하는 것은 미완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혁명 의지가 계속해서 연장되는 것은 혁명 이후 현실에 또 다른 혁명 의지가 내포되었기 때문이다. 혁명 의지는 '이승을 담아버린/그리고 이승을 뚫어버린' 신념으로 '빛나는 눈'을 통해 현실 내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애도를 혁명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사유에는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희생당한 자들의 무고한 죽음을 추모하는 동시에 이들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죄의식이 작용한다. 이 때문에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희생당한 자들에 대한 애도를 선택한 것이다. 화자는 희생자들을 내면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애도를 실천하고 이를 통해 혁명 완수의 의지를 보인다.

29) 신동엽, 앞의 책, 2013, 27-32면.

여기서 애도는 '나의 생과 함께/내 열매 속에 살아' 존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은 애도를 데리다의 관점에서 이해한 것이다. 데리다는 상실의 대상에 대한 타자성과 상실의 주체가 공존할 때 애도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또한 성공적인 애도는 우리가 타자로부터 벗어날 때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상실의 대상에 대한 타자성을 유지하면서 상실의 주체가 상실의 대상과 공존하는 애도 과정에서 타자로부터 벗어나는 성공적 애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데리다가 말하는 애도의 불가능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가 진행되는 것은 애도의 본래 목적인 상실의 대상을 잘 보내기 위함이다. 이는 살아남은 자가 혁명의 희생자를 애도하는 것이 애도의 성공과 실패와는 별개로 자신의 내부에 공존시키는 방법으로 상실의 대상을 잊지 않은 상태로 잘 보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병적인 슬픔에서 벗어나 현실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애도 작업은 혁명의 정신적 실천물인 동시에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선결조건으로 이해된다.

> 모질게도 높은 성(城)돌/모질게도 악랄한 채찍/모질게도 음흉한 술책으로/죄 없는 월급쟁이/가난한 백성/평화한 마음을 뒤보채어쌓더니//산에서 바다/읍에서 읍/학원(學園)에서 도시, 도시 너머 궁궐 아래./봄 따라 왁자히 피어나는/꽃보래/돌팔매,//젊은 가슴/물결에 헐려/잔재주 부려쌓던 해늙은 아귀들은/그예 도망쳐 갔구나.//-애인의 가슴을 뚫었지?/아니면 조국의 기폭(旗幅)을 쏘았나?/그것도 아니라면, 너의 아들의 학교 가는 눈동자 속에 총알을 박아보았나?-//죽지 않고 살아 있었구나/우리들의 피는 대지와 함께 숨쉬고/우리들의 눈동자는 강물과 함께 빛나 있었구나.//4월 19일, 그것은 우리들의 조상이 우랄 고원에서 풀을 뜯으며 양달진 동남아 하늘 고운 반도에 이주 오던 그날부터 삼한(三韓)으로 백제로 고려로 흐르던 강물, 아름다운 치맛자락 매듭 고운 흰 허리들의 줄기가 3·1의 하늘로 솟았다가 또다시 오늘 우리들의 눈앞에 솟구쳐오른 아사달(阿斯達) 아사녀의 몸무림, 빛나는 앙가슴과 물굽이의 찬란한 반항이었다.//물러가라, 그렇게/쥐구멍을 찾으며/검불처럼 흩어져 역사의 하수구 진창 속으로/흘러가버려마는, 너는./오욕(汚辱)된 권세 저주받을 이름 함께.//어느 누가 막을 것인가/태백줄기 고을고을마다 봄이 오면 피어나는/진달래·개나리·복사//알제리아 흑인촌에서/카스피 해 바닷가의 촌 아가씨 마을에서/아침 맑은 나라 거리와 거리/광화문 앞마당, 효자동 종점에서/노도(怒濤)처럼 일어난 이 새 피 뿜는 불기둥의/항

> 거……/충천하는 자유에의 의지……//길어도 길어도 다함 없는 샘물처럼/정의와 울분의 행렬은/억겁(億劫)을 두고 젊음쳐 뒤를 이을지어니//온갖 영광은 햇빛과 함께,/소리치다 쓰러져간 어린 전사(戰士)의/아름다운 손등 위에 퍼부어지어라.
>
> —「阿斯女」 전문[30]

이 시에서 신동엽은 민족주의적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4·19혁명의 의미를 재구성하였다. 4·19혁명을 동학운동, 3·1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한 결과로, 4·19혁명의 저항 정신을 당대의 시대적 산물이 아닌 선대의 역사적 산물로 이해한 것이다. 이처럼 4·19혁명의 당위성에는 선대부터 이어져 온 민중들의 저항 정신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비극적 역사는 시간의 간극과 별개로 반복되었으며 그때마다 민중들은 지배층의 횡포에 맞서 저항하였다. 그 결과 '해늙은 아귀들은/그예 도망쳐'가는 현실과 마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저항 정신은 혁명 의지의 바탕에 자리한다. 저항의 결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희생은 혁명 과정에서 희생당한 민중들을 애도하게 한다. 이러한 민중들은 '죽지 않고 살아' 존재하며, 살아남은 자의 내면에 타자성을 유지한 채 공존한다. 이러한 데리다식 애도는 미완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혁명의 주체들은 애도의 대상과 함께 미완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준비를 지속한다. 화자는 혁명을 지속하기 위한 '찬란한 반항'에도 불구하고 '너'로 표상되는 혁명을 위협하는 존재들을 '저주'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이어져온 혁명 주체들을 희생시킨 자들에 대한 원망과 이를 통한 혁명 의지의 표출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혁명 의지는 한반도 전역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어 나타난다. 혁명에 대한 의지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의지와 같으며, 오래전 민중들이 쟁취하려던 결과와 동일하다. 즉, 혁명 의지를 표출하는 혁명 주체들은 선대에서부터 이어져온 하나의 통일된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대의 저항 주체들을 애도함으로써 얻은 저항 의지는 4·19혁명의 원동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혁명의 희생자들은 또 다른 혁명 주체 내부에서 미완의

30) 같은 책, 345-347면.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공존하며, 죽었지만 죽지 않은 채 혁명의 동력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4·19혁명의 희생자를 애도하는 것은 4·19혁명 이후의 또 다른 혁명을 위한 준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바른쪽 가슴에 하늘빛 광목 조각을 달고 다닙시다//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리,/시위하고 싶어도 데모 못하는 우리,/조용한 주권자의 의사를 나타내기 위하여//오늘부터 바른쪽 가슴마다, 세로 2쎈티, 가로 2쎈티, 잉크빛 천 조각을 달고 다닙시다//우리들의 아들딸이 곤봉에 거꾸러지고/우리들의 형제가 구둣발에 짓밟혀도/말 한마디 못하고 서서 구경만 해야 하는/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 주민들의 정당한 의사를 나타내기 위하여//우리 오늘부터 첫눈이 올 때까지/바른쪽 가슴마다 하늘빛 광목 조각을/달고 다닙시다.//그러면 며칠 안 가서,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모든 국민이 하늘빛 '반대(反對)'를 가슴에 달면,/과연 굴욕외교와 일당전횡(一黨專橫)을 찬성하는 얼굴들이,/삼천리강토에 몇 사람이나 되는가/그 불쌍한 얼굴 좀 들여다봅시다.//우선 오늘부터 우리 주권자들이 죽지 않았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른쪽 가슴마다 잉크빛 천을 달고 다닙시다//그러면 경찰과 싸우지 않아도/거리를 다니는 우리 모든 국민의 물결도, 그대로 살아서 소리치는 시위가 될 겁니다.
>
> —「바른쪽 가슴에 광목 조각을」[31] 전문[32]

화자는 '바른쪽 가슴에 광목 조각을' 다는 행위를 혁명에 필요한 주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으로 이해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국가 권력에 희생당한 대상에 대한 애도까지 내포한다. 국가 권력에 대응하는 주권자의 의사 표출은 혁명에 대한 주체적인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에는 희생이 수반된다. 다시 말해 '곤봉에 거꾸러지고', '구두발에 짓밟혀도' 계속되는 혁명의 주체적이고 실천적 행동은 결국 혁명의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선결조건으로 이해하고 실천한다. 애도는 '죽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광목 조각'의 형태로 나타나며, 죽었지만 죽지 않은 상태로 혁명 주체 내부에 공존하는 것이다. 국가 권력에

---

31) 이 작품은 원고지에 '無名詩人'이란 명의로 씌어 있으나 신동엽 시인의 필체와 같다. 같은 책, 600면. 이렇게 신동엽이 필명으로 작품을 발표한 까닭은 혁명을 선동하는 행위를 사실적으로 묘사함에 있어 국가 권력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여 적나라하게 현실을 묘사함은 문학의 사회 참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2) 같은 책, 599-600면.

의한 희생자들은 살아남은 혁명 주체 내부에 공존한 채 혁명 의지를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애도의 실천은 비폭력적으로 나타난다. 민중들은 국가가 행사한 폭력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민중들은 국가의 폭력에도 '바른쪽 가슴에 광목 조각을' 다는 행위로 주권을 지키며 혁명 의지를 재확인한다. 민중들은 국가 폭력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도 혁명을 완수할 수 있음을 피력한 것이다. 이렇게 국가 폭력에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혁명으로 인하여 희생당한 대상을 애도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희생의 원인으로 작용한 국가 폭력에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기보다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때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혁명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사랑의 필수불가결로서 애도

문학에서 사랑은 언제나 통용되는 테마로 다양한 층위에서 형상화된다. 신동엽의 시에서 나타나는 사랑은 단순히 남녀 간의 성적 사랑을 넘어 보편적 가치로 통용된다. 보편적 가치로서의 사랑은 타자의 타자성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타자의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타자를 인격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은 신동엽 시에서 인류애적 모습으로 구현된다. 신동엽은 타자에 대한 사랑과 그 이면에 자리한 상실의 상태까지 주목한다. 이는 데리다가 이해한 사랑과 애도의 견해와 동일하다.

데리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만을 사랑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가사성(可死性)은 우연한 것도 아니며 외적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 사랑의 조건이다."[33]라고 말한다. 보편적 가치로 나타나는 사랑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를 대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모습 때문에 "사랑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존재하는 것이며, 혹은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언제나 이미 상대에게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서 갈라서 있음을 조건으로

33) 니콜러스 로일, 앞의 책, 302면.

한다."[34]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에 내재된 죽음의 속성 즉 사랑으로 인한 상실은 사랑의 애도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되며 사랑의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 된다.

프로이트는 사랑에 대한 상실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체 대상을 강구하지만 데리다는 자신 내부에 존재시켜 함께 공존한다. 데리다식 애도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사랑의 지속을 가능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을 다른 대체 대상을 통해 벗어나려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을 내면화하여 애도하였을 때 사랑은 보편적 가치로서 지속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신동엽은 사랑에서 애도를 필수불가결한 선택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 아름다운/하늘 밑/너도야 왔다 가는구나/쓸쓸한 세상세월/너도야 왔다 가는구나.
> //다시는/못 만날지라도 먼 훗날/무덤 속 누워 추억하자,/호젓한 산골길서 마주친/그날, 우리 왜/인사도 없이/지나쳤던가, 하고./
>
> —「그 사람에게」 전문[35]

위 시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상실과 그에 대응하는 자세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사랑은 보통 남녀 간의 성적 사랑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보편적 가치로서 기능한다. 화자는 '너'로 표상되는 사랑의 대상을 애도한다. 여기서 애도는 '너'의 타자성을 유지한 채 화자 내면에서 공존한다. 화자는 '너'와 함께 공존하였던 현실을 '아름다운' 공간이자 '쓸쓸한' 공간의 중첩된 이미지로 인식한다. 현실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쓸쓸한' 공간으로 변화한 것은 '너'의 부재 때문이다. 이와 함께 화자가 '너'와의 훗날을 기약하는 것은 상실이 사랑을 전제하고 있음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너'가 지칭하는 대상은 화자 개인적 사랑의 대상이기보다 혁명으로 인하여 희생당한 자들로 이해할 수 있다. 화자는 혁명의 희생자들과의 관계를 '다시는 못 만' 나는 관계로 규정한다. 그러면서 화자는 혁명의 희생자들의 죽

34) 같은 책, 303면.
35) 신동엽, 앞의 책, 2013, 395면.

음을 애도의 결과물인 '무덤'을 통하여 소환한다. 여기서 '무덤'은 화자 자신의 내부에 존재한다. 이러한 애도 때문에 화자는 '너'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추억'할 수 있는 것이다. '추억'이 가능한 시간적 거리는 '먼 훗날'로 제시된다. 이러한 시간적 거리감은 화자가 '너'를 애도하여 주체의 내면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너'의 상실을 인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너'를 애도하는 시간은 '너'의 죽음 자체를 인정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화자는 '너'를 애도하는 과정에서 '너'와 재회한 '그날'을 상기한다. '호젓한 산골'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도 없이 지나쳤던' 현실은 '너'와의 관계를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과의 만남을 무감각하게 '지나쳤던' 것은 또 다른 희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즉 혁명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대상의 희생이 이루어졌고, 혁명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희생을 '너'에 대한 무관심으로 차단한다. 화자는 사랑하는 '너'에 대한 감정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보다 살아남은 자의 사명감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의 만남은 희망을 상징하기에 화자는 '너'와의 재회를 상기한다. 보편적 가치로서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선택으로 작용하는 애도가 사랑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지금은/어데 갔을까.//눈은 날리고/아흔아홉 굽이 넘어/바람은 부는데/상엿집 양달 아래/콧물 흘리며/ 국수 팔던 할멈.//그 논길을 타고/한달을 가면, 지금도/일곱의 우는 딸들/걸레에 싸안고/대한(大寒)의 문 앞에 서서 있을/바람 소리여//하늘은 광란(狂亂)/까치도 쉬어 넘던/동해 마루턱/보이는 건 눈에 묻은 나,/나와 빠알간 까치밥.//아랫도리 걷어올린/바람아,/머릿다발 이겨 붙여 산막(山幕) 뒤꼍/다습던/얼음꽃/입술의 맛이여.//눈은 날리고/아흔아홉 굽이 넘어/한(恨,)/한은 쫓기는데//상엿집 양달 아래/트렁크 끄르며/스웨털 갈아입던 여인……
>
> —「눈 날리던 날」 전문[36]

위 시에서 보편적 가치로서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의 속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사랑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형상화된다. '상엿집'은 죽음

36) 같은 책, 23-24면.

과 삶의 성격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상엿집'에서는 상주가 죽은 자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자신의 기억 속에서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애도가 진행된다. 이승과 저승 사이에 있는 혼령은 산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은 자에 대한 기억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37] 이러한 '상엿집'에서 '할멈'은 '국수'를 팔며 생의 의지를 연장한다. 죽음의 공간에서 '할멈'이 생의 의지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곱의 우는 딸'들 때문이다. 죽음과 삶의 성격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생의 의지를 표출하는 것은 자신의 삶보다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대상에 대한 사랑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화자는 조건 없는 사랑의 대상과 이를 받는 대상을 동일시하면서 사랑의 의미를 확장시킨다.

조건 없는 사랑의 대상은 단순히 '딸'로 한정되지 적용되지 않는다. '나와 빠알간 까치밥' 또한 조건 없는 사랑의 대상이 된다. '나'는 '할멈'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사랑을 정으로 이해한다. 이 때문에 '나'는 '할멈'을 자신의 내부에 내면화시켜 애도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빠알간 까치밥'으로 표상되는 나눔과 배려는 모든 생명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사랑이다. 여기서 보편적 가치로서의 사랑이 발현되는 현실은 '얼음꽃'과 '다습'함이 공존한다. '바람'이 불어 '머릿다발'이 날리는 '산막'에서 '얼음꽃'과 '입술의 맛'이 '다습'하게 느껴지는 것은 현실이 '할멈'과의 추억이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입술의 맛'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할멈'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매개이다. 이렇게 사랑의 모습이 '눈 날리던 날'의 척박한 자연과 대비되어 부각되는 것은 보편적 가치로서의 사랑의 따뜻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할멈'과 '여인'의 관계이다. '여인'은 '할멈'의 생의 의지를 연장시킨 '딸'로 이해된다. 이러한 '여인'이 '상여집' 즉 애도의 공간으로 찾아온 것은 '할멈'을 애도하기 위함이다. '여인'은 '할멈'을 애도함으로써 '할멈'의 삶을 이해하고 동경한다. '여인'이 겨울에 '스웨털 갈아입는' 행위는 '할멈'이 콧물을 흘리며 다짐했던 생의 의지와 동일한 행동으로 이해된다. '할멈'이 자신의 삶의 일정 부분을 포기 하고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사랑을 실천한 것과 같이 '여

37) 임진수, 앞의 책, 21면.

인' 또한 '할멈'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일시는 조건 없는 사랑이 가진 보편적 가치의 범위를 암시하며 그 내면에 애도가 필수불가결한 선택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 건, 보리밭서/강의 물결 타고/거슬러올라가던 꿈이었지.//아무도 모를 무섬이었지/우리네 숨가쁜 몸짓은.//사랑하던 사람들은/기(旗)를 꽂고 달아나버리었나,//버스 속선 검정구두 빛났고/우리 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그건, 보리밭서/강의 물결을 타고 거슬러/올라가던 꿈이었지.//너의 눈동자엔/북부여(北扶餘) 달빛/젖어 떨어지고,//조상 적 사냥 다니던/태백 줄기 옹달샘 물맛,/너의 입술 안에 담기어 있었지.//네 몸양은 내 안에/보리밭과 함께/살아 움직이고,//맨 몸, 뙤약볕 아래/서해바다로 들어가던/넌 칡순 같은 짐승이었지.
>
> —「보리밭」 전문38)

이 작품에서 사랑은 현실과 꿈의 교차를 통하여 구현된다. 이러한 사랑은 민족적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이해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실은 애도를 필수불가결한 선택으로 나타난다. 즉, 사랑은 단순히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북부여'에서부터 이어져 온 '조상'들의 보편적인 가치이며, 그 이면에 내재한 애도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편적 가치로서의 사랑이 선대부터 현재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상실에 대해 애도를 자신의 내부에 공존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화자에게 사랑은 현실을 살아가는 조건인 동시에 공포의 대상이다. '숨가쁜 몸짓'과 '아무도 모를 무섬'(무서움)은 '사랑하던 사람들'의 상실로 다가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랑은 결국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상태로 '검정구두'만 존재하는 현실과 마주한다. '사랑하던 사람들'이 '기'를 꽂고 대응한 현실은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로 있지만 화자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현실에서 '꿈'으로 도피한다. 이처럼 사랑이 현실과 '꿈'이 교차하여 발현되는 것은 현실의 참혹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랑은 현실에서 상실된 대상을 잘 보냄으로써 애도를 수행

38) 신동엽, 앞의 책, 2013, 391-392면.

하고 이를 통해 사랑을 구현한다.

‘너’에 대한 애도는 ‘네 몸양은 내 안’에 내면화되어 ‘내 안’에 공존하며 진행된다. 그 결과 상실의 대상은 ‘칡순 같던 짐승’으로 소환된다. 원초적 본능이 살아 있는 상태로 죽었지만 죽지 않은 채 ‘내 안’에 공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애도는 현실과 꿈의 경계를 허물어 사랑을 지속 가능한 보편적 가치로서 실천하게 한다. 결국 꿈과 현실의 대비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제공하여 현실의 모순을 부각시킨다. 그 과정에서 상실의 상태는 애도를 통해 보편적 가치의 실천이 가능한 상태로 나타난다. 이는 애도가 사랑의 필수불가결한 선택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애도적 사유는 시적 구현을 통해 사랑을 보편적인 가치로서 실천하며 영속적인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

5. 결론

본고는 신동엽 시의 원천 의식이 ‘애도’를 기반으로 형성하였다고 보고 신동엽 시에 드러난 애도의 성격에 주목하여 그 양상과 의미를 확인하였다. 신동엽은 당대의 현실을 상실의 상태로 파악하였고, 상실 이후의 삶에 주목하였다. 애도는 상실에 대한 반응으로 신동엽이 당대의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이었다. 나아가 신동엽 시의 원천으로서 시세계를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애도는 신동엽 시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신동엽 시에서 애도는 비극에 대응하는 반응으로 표출되었다. 특히 전쟁의 비극적 상황에서 통과의례로 등장하여 상실의 대상을 극복하고 상실 이후의 삶을 위한 방편으로 나타났다. 전쟁의 비극적 상황은 전쟁의 종결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이후에도 현실에 잔존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신동엽은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애도 작업을 통과의례로 인식한 것이다. 성공적인 애도 작업은 상실 이후의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지향적 실천이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 실천은 단순히 상실의 상태에서 벗어나 현실의 안위를 확보하기 위한 태도로 이해하기보다 미래 현실을 지배하는 상실과 슬픔의 원천을 극복하려는 태도였다.

또한 신동엽 시에서 애도는 혁명의 완수를 가능하게 하는 선결조건으로 나타났다. 혁명은 미완의 상태로 현실에서 지속적으로 소환되었다. 이는 미완의 혁명을 완결시키려는 의지와 함께 혁명을 위해 희생(당)한 자들에 대한 애도를 함의하였다. 여기서 희생(당)한 자들은 타자성을 유지한 채 상실의 주체 내부에 존재한다. 혁명은 애도가 가능할 때 종국에는 완결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애도는 혁명 의지의 재확인을 가능하게 하며, 미완의 혁명을 완결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혁명의 정신적인 실천물로 기능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동엽 시에서 애도는 사랑의 필수불가결한 선택으로 자리하였다. 신동엽 시에서 사랑은 남녀 간의 성적 사랑을 넘어 보편적 가치로 인식되었다. 보편적 가치로서의 사랑에도 상실이 뒤따르며, 그것은 사랑에 불완전한 속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 발생하는 상실은 보편적인 가치의 지속 가능성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보편적 가치로서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애도가 필수불가결한 선택으로 자리하는 것이다. 여기서 애도는 상실의 대상을 내면화하여 소환하고, 이를 통해 보편적 가치로서의 사랑을 실천하였다.

▮ 참고문헌

신동엽, 강형철 · 김윤태 엮음, 『신동엽 시전집』, 창작과비평사, 2013.
_____, 『신동엽 산문전집』, 창작과비평사, 2019.

구중서 · 강형철 엮음, 『민족시인 신동엽』, 소명출판, 1999.
김 석, 「애도의 부재와 욕망의 좌절」, 『민주주의와 인권』 제12권 1호, 전남대 5.18연구소, 2012, 57-83면.
김수영, 「참여시의 정리—1960년대의 시인을 중심으로」, 『김수영 전집2 산문』, 민음사, 2011.
김승희, 「전후 시의 언술 특성: 애도의 언어와 우울증의 언어」, 『한국시학연구』 제23호, 한국시학회, 2008, 123-152면.
김희정, 「신동엽 시에 나타난 정치적 진리 절차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9.
니콜러스 로일, 오문석 역, 『자크 데리다의 유령들』, 엘피, 2007.
박지영, 「제3세계로서의 자기 정위와 '신성'의 발견: 1960년대 김수영 · 신동엽 시에 나타난 정치적 상상력」, 『반교어문연구』 제39권, 반교어문학회, 2015, 465-513면.
방승호, 「신동엽 시의 멜랑콜리 표상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63집, 우리문학회, 2019, 375-398면.
오문석, 「신동엽의 시론 연구」, 『인문학연구』 제48호, 조선대 인문학연구소, 2014, 7-32면.
오창은, 「시적 상상력, 근대체제를 겨누다」, 김응교 엮음, 『신동엽: 사랑과 혁명의 시인』, 글누림, 2011.
왕 철, 「프로이트와 데리아의 애도이론—"나는 애도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영어영문학』 제58권 4호, 한국영어영문학회, 2012, 783-807면.
이나영, 「신동엽 문학사상과 동학사상의 관련성 고찰」, 『어문학』 제144집, 한국어문학회, 2019, 259-302면.
이대성, 「신동엽 시에 나타난 오장환 시의 인유 양상 연구」, 『한국문학과 예술』 제25집,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8, 101-136면.
임진수, 『애도와 멜랑콜리』, 파워북, 2013.
자크 데리다, 진태원 역, 『마르크스의 유령들』, 이제이북스, 2007.
조동일, 「시와 현실참여—참여파의 시적 가능성」, 『52人 詩集』, 신구문화사, 1967.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 · 박찬부 역, 「슬픔과 우울증」,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화당, 2003.
최진석, 「아나키의 시학과 윤리학」, 『비교문학』 제71권, 한국비교문학회, 2017, 117-152면.
페넬로페 도이처, 변성찬 역, 『HOW TO READ 데리다』, 웅진지식하우스, 2007.

【Abstract】

Study of the Mourning aspect of Shin Dong-yup's poetry

Kim, Tae-Wo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aspect of Mourning and its meaning in the poetry of Shin Dong-yup. In response to the loss of Mourning, in the poetry of Shin Dong-yup appears in a way that understanding and accepting the realities those days. Also, as source in the poetry of Shin Dong-yup action a driving force behind the poetry's world. Thus, freud and derida's mourning theory was apply to understand the aspect and meaning in the poetry of Shin Dong-yup.

Mourning was expressed in the form of a response to tragedy in the poetry of Shin Dong-yup. In the tragic circumstances of war Mourning appeared as a rite of passage, overcoming the object of loss and preparing for life after the loss. Furthermore, through successful Mourning work, responded the new situations after the loss. The next Mourning was chosen as a prerequisite for the revolution that appeared in the poetry of Shin Dong-yup. The Mourning for the revolution was not about overcoming the state of loss, but with the object of loss. When Mourning for those who were sacrificed by the revolution, the revolution was identified as a subject that could be sustained and eventually completed. Lastly, Mourning became an indispensable choice for the continuation of love as a universal value. Mourning internalized the object of loss and summoned it. And through this, they practiced universal values.

As such, mourning is inherent in the original consciousness in the poetry of Shin Dong-yup. And was appear as a mechanism for the practice of future-oriented, mental, and universal values of the object of loss. To grasp the mourning revealed in the poetry of Shin Dong-yup, is to understand the poetic attitude and principle of Shin Dong-yup's poems.

Keywords: Shin Dong-yup, Mourning, tragedy, revolution, love, Freud, Derida.

접수일: 2020.09.28. ‖ 심사일: 2020.10.07. ‖ 게재확정일: 2020.11.16.

* Ph.D. Candidate, Dept. of Korean Language Literature, Jeonbuk National Univ.